

동아시아의 살롱- 19세기 한중 지식인 교류 공간의 특징과 의의

연세대학교 조민우

1. 들어가며

후지츠카 치카시(藤塚鄰)는 그의 『清朝文化東傳の研究』 서문에서 자신의 연구가 經學에서 교류사로 전환한 계기가 바로 琉璃廠에 대한 흥미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밝혔다.

1921년 가을 나는 제8고등학교(현 나고야 대학) 교수였던 나는 관명을 받아 청조의 경학을 연구하기 위해 …… 그러면서 琉璃廠에 있는 책방에 큰 흥미를 느꼈고 그와 관련된 문헌을 섭렵하게 됐다. …… 우연히 청나라의 陳鱣이 쓴 『簡莊文鈔』를 읽으면서 “嘉慶六年三月, 余舉進士游都中, 遇朝鮮國使臣朴修其檢書與琉璃廠書肆一見, 如舊相識”라는 글귀를 접하면서 유리창에 관한 새로운 자료 하나를 얻었다고 기뻐했다. 그와 동시에 조선의 “朴修其”라는 이름을 머릿속에 깊이 새기게 되었다.¹⁾

후지츠카 치카시의 동아시아 교류사에 대한 연구가 空間 연구, 즉 琉璃廠에 대한 자료 수집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의외의 일이다. 동시에 교류 연구에서 공간이라는 접근법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사례일 것이다

그동안 한국, 중국, 일본 학자들은 16-19세기의 동아시아 공간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제안하였다. 葛兆光是 동아시아의 “文化共同體”라는 개념을 제안하며, 동시에 이 공간 개념은 17세기 이후로 점차 해체되어 붕괴되었음을 주장하였다.²⁾ 高橋博巳와 정민은 각각 17, 18세기 동아시아를 연구하면서 “文藝共和國”이란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는 서양 학술사에서 “Republic of Letters”란 개념을 번역한 것으로, 17세기 서구 지식인들이 서신으로 교류하며 형성된 지식 공동체를 지칭하는 개념을 借用한 것이다.³⁾

그간 연행 연구에서는 연행使臣들의 활동 공간 연구나 유리창, 숙소 등 특정 교류 공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기에, 이를 기초로 전반적인 교류 공간에 대한 유형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발표문은 교류 공간 유형화 작업의 선행적 연구로서 19세기의 연경에서 이루어진 교류 공간만을 특정하여 분석하고 해당 시기의 교류 공간이 대개 “公共性”이라는 특징이 있기에 이러한 교류 공간을 “동아시아의 살롱”이라 명명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19세기의 교류 공간의 특징은 이전 시기에 비해 “公共場所”에서 교류하는 사례가 빈번히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 소위 “公共場所”는 모두가 자유롭게 오고가는 공간으로서, 宗教空間과 市局店舖로 나눌 수 있다. 宗教空間으로는 구체적으로 慈仁寺, 松筠庵를 들 수 있고, 市局店舖로는 人蔘局, 織錦舖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교류 장소의 변화의 이유로는 개인적 요인과 시대적인 요인을 짚어볼 수 있으며 본 연구는 그들이 교류한 서신, 문집 등에서 그 정황과

1) 藤塚鄰著, 윤철규, 이충구, 김규선 역, 『秋史金正喜研究』, 과천문화원, 2009년 1월, 15쪽.
2) 葛兆光, 「從“朝天”到“燕行”——17世紀中葉後東亞文化共同體的解體」, 『中華文史論叢』總第81輯, 2006.
3) 高橋博巳, 『東アジアの文藝共和國—通信使・北学派・兼葭堂』, 東京: 新典社, 2009. 정민, 『18세기 한중 지식인의 문예 공화국』, 문학동네, 2014. 高橋博巳의 “문예공화국”은 조선과 일본이 어떻게 한문을 공통언어로서 소통했다는 개념이라면, 정민은 이를 확충하여 18세기 한국, 중국 지식인들 간의 교류에도 적용하였다.

이유를 찾아보고자 한다.

19세기 교류 장소로서 “공공장소”의 의미는 기존의 偶然적인 교류나, 私인 장소에서 폐쇄적으로 이루어진 교류에 비해 자유롭게 교제하는 장소로 공간적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19세기의 공간을 크게 세 유형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個人書齋가 있다. 이는 金正喜, 翁方綱의 교류공간인 “石墨書樓”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두 번째로 慈仁寺로 대표할 수 있는 宗教空間, 세 번째로 人蔘局 등의 市局店舖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교류공간의 분석을 통해 19세기 한국과 중국 지식인 교류가 자유롭고 개방된 분위기에 서 친밀하게 이루어졌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환을 청대 정치적인 요소, 조선 지식인들의 인식 변화, 또 국제적으로 서양의 위협에 따른 동아시아의 결속 등 19세기의 政治, 國際, 個人적 요인 속에서 피어난 “동아시아의 살롱 문화”였다고 제안하겠다.

2. 個人 書齋 - 石墨書樓의 交流

19세기 이전의 교류공간은 대부분 使館이나 私邸가 주를 이루었다. 대표적으로 1766년 洪大容이 찾아간 곳 역시 乾淨衛衙 안의 嚴城, 潘庭均의 私人 숙소로서 通官의 감시를 피해 은밀히 교류했던 장소이다.

반면 1810년 翁方綱과 金正喜가 만난 石墨書樓는 사적 공간과 공공 장소로서의 의미가 모두 있다. 石墨書樓는 옹방강의 개인 서재로서, 비록 옹방강의 사적 공간이긴 하지만 동시에 상당 부분 공공성도 보장되는 장소였다. 石墨書樓에 대한 소개로서 옹방강의 제자였던 錢泳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도서 문적이 서가에 빼곡이 꽂혀 있어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마치 수만 송이 꽃이 피어 있는 계곡 속에 들어간 것 같아 마음이 흔들리고 눈이 현란해져 이야기를 나눌 겨를조차 없다.⁴⁾

즉, 石墨書樓는 옹방강 개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제자를 포함하여 많은 지식인들이 거쳐간 공공장소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18세기 말부터 조선 지식인들이 중국 지식인의 서재를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으니, 김정희의 石墨書樓 방문이 중국 지식인의 서재를 방문하는 최초 사례는 아니다. 그러나 김정희와 옹방강의 만남은 교류사적 측면에서 상징성이 크다 할 수 있다. 1810년 乾嘉학파의 마지막 일원을 자임한 옹방강, 완원은 이제 학계의 거두로서 후학 양성에 관심을 보였고, 김정희는 진사 급제한 20대 수재로서 19세기 중반 조선과 교류한 중국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상징이 된다. 이들의 교류 이후로 道光, 咸豐 연간의 젊은 지식인들이 생겨나니, 김정희의 교류는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상징적인 사건이 된다. 그리고 필자의 생각에는 이들이 교류한 공간 역시 “사적 공간”에서 “공공장소”로 전환되는 과정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인다.

3. 宗教空間 - 法源寺, 慈仁寺 등

4) 원문: “圖書文籍, 插架琳琅, 登其堂者, 如入萬花谷中, 令人心搖目眩, 而無暇譚論者也.” 錢泳, 『履園叢話·耆舊』 번역문: 후지츠카 치카시, 윤철규, 이충구 김규선 옮김, 추사 김정희 연구, 과천문화원, 2009년, 150페이지의 번역을 참고.

法源寺의 위치는 현재 北京 西城區 法源寺前街7號에 있으며 경내에 謝枋得祠가 있다. 慈仁寺는 일명 報國寺로서 현재 北京 西城區 報國寺大街1號에 있으며 1843년 사원의 西院을 개축하여 顧炎武를 기리는 사당을 지었다.

정확히 언제부터 조선 문인들이 연경의 법원사, 자인사에서 중국 지식인들과 교류를 시작했는지 알기는 어렵다. 다만 김정희, 申緯의 글에서 법원사에서 중국 지식인과 교류했다는 짧은 기록을 찾을 수 있으며 자인사는 1843년 顧祠를 개축한 전후로 양국 지식인들이 활발히 교류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으니 종교공간에서의 만남은 19세기에 들어서 크게 빈번했다고 말할 수 있다.

1837년 6월 汪喜孫이 李尚迪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장막과 같은 慈仁寺 소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면서 또한 친구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⁵⁾

또 1863년 4월 王軒이 李尚迪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러한 글도 있다.

전에 25일 松筠庵에서 만나자고 했던 약속은 (중략) 다른 날 다른 장소로 약속을 바꾸어서, 27일이나 28일 謝祠에서 작은 모임을 갖자고 수정하였습니다.⁶⁾

종교 공간 역시 “공공성”이 드러나는 장소이다. 19세기의 양국 지식인들은 편안한 분위기에 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 종교 공간을 선호했음을 알 수 있다.

4. 市局店舖 - 人蔘局을 中心으로

19세기 교류사에서 가장 눈에 띈 공간적 변화는 바로 市局店舖에서의 만남이다. 위 개인 서재, 종교공간 등은 18세기 말부터 교류했던 사례가 있으며, 어느 정도 “사적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존재했다. 그러나 시국점포는 타 공간에 비해 19세기 이전의 기록이 없으며, 누구나 오고갈 수 있는 “공공장소”로서의 의미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다.

이러한 시국점포에서의 만남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례는 이상적의 편지 및 임백연의 여행록 등을 꼽을 수 있다.

1) 이상적의 편지

李尚迪(1803-1865)은 19세기 교류사에 중요한 인물로서 김정희의 제자로 歲寒圖를 중국 지식인들에게 소개한 사건으로 유명하다. 그는 당시 중국 지식인들과 교류했던 편지를 정리하여 『海鄰尺素』라 이름 붙였으니 이를 보면 중국 지식인들과 市局店舖에서 수차례 교류했던 기록을 찾을 수 있다. 본 발표문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몇 개만 소개해보고자 한다.

1841년 10월 趙文涵이 이상적에게 보낸 편지에는 中和蔘局에서 만나자는 언급이 있다.

5) 원문: “慈仁綠陰如幃, 小憩松下, 亦可班荆.” 번역문: 정후수 역, 『북경편지』, 412쪽, 참고.

6) 원문: “前訂廿五日筠庵之約, (中略)故擬改期改地, 昨訂於廿七八日小集謝祠.” 번역문: 정후수 역, 『북경편지』, 628쪽, 참고.

中和蔘局에서 만나거나 혹은 선생이 계신 집이거나 편리하게 다시 전에 맺었던 인연을 계속하여 맺도록 도모해 주신다면 황공함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⁷⁾

또 1863년 4월 程恭壽가 李尚迪에게 보낸 편지에도 中和局가 나온다.

제 생각에는 아마 22일 오전 8시쯤 玉河館 남쪽에 있는 中和局에 나가서 삼가 선생의 기거를 여쭙고 훌륭한 시문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⁸⁾

中和局 외에도 寶寧局라는 인삼국도 교류장소로 쓰인 기록이 있다. 1837년 7월 王鴻의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만일 오후에 한가하시면, 즉시 寶寧楊東友의 거소로 오셔서 詩酒의 즐거움을 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⁹⁾

또 1837년 1월 汪喜孫의 편지에도 寶寧局에서 보자는 언급이 있다.

20일의 약속은 어느 때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전입니까, 아니면 오후입니까? 寶寧館은 자리가 매우 넓으니 아마도 여러 군자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것입니다. ¹⁰⁾

이러한 편지기록을 통해 19세기의 교류공간에 인삼국이라는 장소가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그들은 인삼국에서 어떠한 교류를 했을까? 이는 임백연의 기록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

2) 任百淵이 기술한 寶寧局에서의 교류

任百淵은 1836-1837년에 동지사로 연경에 가서 많은 중국 지식인과 교류한다. 그가 쓴 여행록은 『鏡語行卷』으로, 본 발표문에서는 그중 1837년 정월 24일자 교류 기록을 소개하고자 한다.

정오에 寶寧局에 갔다가 마침 문에서 汪孟滋와 만났는데, 크게 기뻐하며 서로 손을 잡더니만 편지 하나를 전해 주었다. 아마도 그는 여기 와서 만날 줄 생각조차 못해서 편지를 봉해서 남겨 놓을 작정이었다. 그는 길에서 나를 보고 갑자기 즐겁고 기뻐하여 하하거리며 쉬지 않고 웃었다. 말하다 웃다가 하면서 곧장 나를

7) 원문: “或在中和或來尊館, 以便再續前因, 藉圖良晤, 不勝屏營.” 번역문: 정후수 역, 『북경편지』, 494쪽, 참고.

8) 원문: “擬與二十二日辰刻, 詣館南中和局敬候起居藉聆玉屑.” 번역문: 정후수 역, 『북경편지』, 143쪽, 참고.

9) 원문: “午後如得暇, 希即移玉, 至寶寧楊東友寓. 一敘詩酒之樂, 盼切盼切.” 번역문: 정후수 역, 『북경편지』, 231쪽, 참고.

10) 원문: “二十之約, 不審訂於何時, 午前抑午後耶? 寶寧館席甚寬, 想諸君子所樂游耳.” 번역문: 정후수 역, 『북경편지』, 409쪽, 참고.

데리고 중당으로 들어갔다. (중략) 상사·부사·서장관이 모임 소식을 듣고 갑자기 온지라 말과 웃음으로 떠들썩했다. 하고 싶던 말을 마구 섞다 보니 크게 시끄러웠다. 이윽고 姚恬菴도 와서 서로 즐겁게 보냈다. 11)

왕맹자는 汪喜孫으로 자가 孟滋이다. 중간에 합류한 조선의 삼사는 각각 申在植, 李魯集, 趙啟昇이며, 요염암은 姚涵이며 자가 恬菴이다. 이번 교류를 시간 순으로 보면 우선 임백연과 왕희손이 약속 없이 寶寧局에서 만나 교류가 시작되고, 이 소식을 듣고 조선의 삼사가 찾아오고, 요함 역시 약속은 없었지만 잠시 들렀다가 서로 즐겁게 담소하였던 것이다.

공간을 중심으로 이 교류를 살펴보면 본 사건은 寶寧局에서 “공공장소”의 기능이 구현된 교류였다. 그들이 즐겁게 만나 담소를 나눌 수 있었던 것도 누군가의 허락이 있어야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자유롭게 출입하는 市局店舖의 특성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하고 싶던 말을 마구 뒤섞다 보니 크게 시끄러운” 공간, 그것이 바로 19세기 교류공간의 특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하겠다.

3) 19세기 교류공간의 변화 이유

이전 시기에 비해 19세기의 교류공간의 특징은 위에서 소개한 “공공장소”에서의 교류가 눈에 띈다. “공공장소”에서의 교류가 가능해진 이유로는 양국 지식인들의 친분 강화와 같은 개인적인 사유, 門禁이 느슨해지는 등 청 정부의 조선에 대한 태도 변화, 서구 열강의 침입으로 강해지던 동아시아 유대감과 같은 국제적인 사유 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발표문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위 이러한 사유 외에도 조선 양반들의 중국 상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조선은 청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분제도가 엄격했던 사회로서 1712년 『老稼齋燕行日記』로 유명한 金昌集은 당시에 조선 출신 청국 통관 洪二哥와 이러한 대화를 한다.

홍이가는 계속해서 나에게 말하기를, “조선인은 노복들을 전혀 돌보지 않습니까?” 하기에, 내가 “무슨 말이오?” 하자, 홍이가는, “이곳은 음식의 감고(甘苦)와 의복의 미악(美惡)에 노예와 주인의 구분이 없으며, 심지어는 그 주인이 말을 타면 종도 역시 말을 타는데, 조선에서는 이런 적이 있습니까?” 하기에, 내가 답하기를, “조선의 종은 이곳과는 다른 점이 있소. 대개 기자(箕子)께서 법령을 만드실 때에 남의 재산을 도적질한 자는 대대로 그 집의 종이 되게 하였는데, 지금의 종들은 선조들이 일찍이 남의 재산을 도적질하던 자들이니, 어찌 그 주인과 같을 수 있겠소?” 하니, 홍이가도 자못 그렇게 여겼다.12)

김창집은 18세기 인물이긴 하나 이러한 신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조선사회의 특징으로서

11) 『鏡活行卷·坤』 丁酉二十四日條: 午往寶寧局, 適與汪孟滋遇於門. 大喜相握手, 傳一札, 盖此來相逢未可料, 故具緘留贈也. 見余於道, 陡頓歡喜, 笑嘻嘻不已. 且話且笑, 仍携入中堂.(中略) 上副三使同會遠至, 仍言笑哄然, 雜陳其所欲言, 大不從容. 已而姚恬菴亦來, 相與劇歡.

12) 원문: “二哥仍謂余曰. 朝鮮人全不恤奴僕. 余曰. 何以言之. 二哥曰. 此處則飲食甘苦. 衣服美惡. 奴與主無分. 以至其主騎馬. 奴亦騎馬. 而朝鮮豈曾如此乎. 余曰. 朝鮮奴僕. 與此處有異. 蓋箕子立法. 令盜人財者. 世世爲其奴. 今之爲奴者. 其祖先皆嘗竊他財者也. 安得與其主同. 二哥頗然之.” 번역문: 한국고전db (<http://db.itkc.or.kr>) 참고.

눈여겨 볼만하다. 이러한 분위기는 19세기에도 여전했는데, 앞서 소개한 1837년 1월 汪喜孫이 이상적에게 寶寧局에서 보자고 약속한 편지의 뒷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토로한 바가 있다.

중국에서는 선비를 중히 여겨서 비록 왕공이 포의와 함께 앉아 있더라도 즐거운 모습이 마치 형과 아우 같습니다. 그런데 동방 조선은 예문이 너무 엄격하여 진실로 우러르고 사모할 만은 하나, 천자의 사자가 국경선을 넘어 들어갈 때에는 그 나라의 풍속을 물어 보아야 하니 아직도 ‘하사에게 예로 대우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¹³⁾

1837년 汪喜孫은 구체적인 사건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조선의 신분제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다. 이 아쉬움은 18세기 청국 통관 洪二哥가 제기한 질문과 궤를 같이한다. 19세기 왕희손 역시 조선 사신들이 신분에 관해 엄격히 구분한다는 것을 포착한 것이다.

이렇게 조선 시대의 양반들에게는 직업, 신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기에 商人도 대개 “譯商輩”로 불리며 中人 역관과 비슷한, 혹은 그 이하의 대우를 받았다. 이런 점에서 조선의 양반들로서는 인삼국에 대한 출입을 기록하는 것조차 자랑스러운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세기에 들어서서 조선 양반들은 적어도 淸國商人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기록이 있다.

예를 들어 1853년 姜時永의 『翰軒三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대개 중국 인사는 양반, 평민을 막론하고 모두 물건을 팔아 생계를 도모하니, 그러하기에 점포에는 유학자들이 많다. 그리하여 점포 밖 담에는 捷報(원주: 우리나라의 과거 방문 등과 비슷한 것)가 붙어있다. ¹⁴⁾

이러한 기술은 단순히 청 사회에 대한 소개가 아닌 자신이 중국의 상인들과 교류한 정당성까지 설명하는 글로 본다. 다시 말해 조선 양반들의 市局店舖로의 공간적 이동에는 조선의 상인과는 달리 청국 상인들의 신분이 대개 儒士라는 인식이 생겨난 것도 하나의 요인이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市局店舖의 출입, 인삼국 상인과의 교류도 단순한 모임이 아닌 문인들의 雅會라고 칭할 수 있게 되었다.

5. 동아시아의 살롱: 19세기의 교류공간 특징

본 발표문에서 19세기 교류공간으로 소개한 사례는 개인 서재, 종교 공간, 시국점포였다. 이러한 공간의 공통된 특징은 “공공장소”로서의 특징이 존재한다는 점으로, 특히 시국점포는 “공공장소”의 특징이 가장 잘 구현된 장소로 볼 수 있다.

이런 “공공장소”의 특징은 교류가 우연도 은밀함도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자유롭게 출입하며 담소를 나누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18세기 유럽의 살롱(Salon) 문화가 연상된다. 유럽의 지식인들이 남녀, 신분의 벽을 허물고 대화를 나눴던 문화처럼, “市局店舖”로 대표되는 19세기 한중 교류공간은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살롱이었음을 알 수 있다.

13) 원문: “內地重士, 雖王公與布衣, 并坐歡若昆弟. 似東邦禮文太嚴, 固足仰慕. 然使者入國問俗, 尚冀禮賢下士.” 번역문: 정후수 역, 『북경편지』, 410쪽, 참고.

14) 원문: “蓋中國人士無論紳民皆以鋪貨資生, 故凡市舖之中類多儒士, 故舖壁外面多貼捷報(原注: 即我國科舉送榜之類).” 姜時永: 『翰軒三錄』, 『燕行錄全集』 제73권, 동국대학교 출판사, 396쪽 참고.